

제129회

11월 12일

- ... 본회가 주최한 제 ...○
- ... 129회 발명교실이 지 ...○
- ... 난 11월 12일 발명장 ...○
- ... 려관 연구실에서 개 ...○
- ... 최되었다. 매월 둘째 ...○
- ... 토요일 오후 1시 30 ...○
- ... 분에 개최되는 발명 ...○
- ... 교실은 이 달에도 ...○
- ... 1백여명이 참석하여 ...○
- ... 성황을 이루었다. ...○
- ... 이날 발명교실에서 ...○



언어 교정기 발명가

국제언어학원 송미옥 원장

말을 더듬는 사람들과 6개월에 걸쳐 언어교정기를 만들어 임상실험을 한 결과 교정기계가 없을때 보다 훨씬 빠른 효과가 나타나서 그후 특허를 출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꼬마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웅변학원 같은데를 지나치다 보면 창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시원한 외침이다. 사람은 누구나가 말을 잘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누구나 말을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성격이 급해서, 발음이 부정확해서 등등 많은 원인이 있다.

다른 원인보다는 발음이 부

정확 하다면 이는 빨리 교정을 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발음 교정을 위해 헌신한 여성 발명가가 있다. 세심한 주의와 끊임없는 노력의 댓가로 '94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송미옥 원장.

‘언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살펴본 결과 말을 더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호흡이 불규칙하고 성질이 급해서 말을 빨리하며 목소리가 안으로 기여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명가 송원장은 자신이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교정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를 구상 하였다.

송원장은 먼저 말하는 사람

의 심리적 특성부터 파악하였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 모든 신경이 소리가 나오는 입으로 집중되어 말은 잘나오지 않으면서 공포심만 커진다는 것을 알았다.

제일먼저 할일은 입의 긴장을 눈으로 분산시켜 소리에 대한 공포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언어교정기에 부착시킬 요소들이 하나하나 결정되었다.

소리에 대한 자신감을 일으켜주기 위해 입으로 잦던 긴장을 눈으로 전환시켜주기 위한 음파기가 중요한 요소였다.

소리의 강약에 따라 움직이는 불빛을 보며 위축된 목소

발명교실

성공사례 등 발표

- ... 는 국제언어학원 송 ...○
- ... 미옥 원장의 발명성 ...○
- ... 공사례 발표와 김영 ...○
- ... 화 변리사의 산업재 ...○
- ... 산권제도 해설에 이 ...○
- ... 어 새생각회 강신묵 ...○
- ... 회장의 발명의 발상 ...○
- ... 기법에 대한 강의가 ...○
- ... 있었다. 발명가의 성 ...○
- ... 공사례를 간추려 소 ...○
- ... 개한다. <이두성 記> ...○



리를 키우고, 또 불빛을 좇아 발음을 길게하면서 호흡을 조절하면 막혔던 소리가 트이게 된다는 것이 송원장의 설명이었다.

‘말은 소리이고, 소리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로 변하고 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능력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송원장은 말을 더듬는 사람들과 6개월에 걸쳐 언어교정기를 만들어 임상실험을 한 결과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교정기계가 없을 때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언어가 교정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후 서둘러서 언어교정기를 특허청에 출원하였다. 이

기기의 가장 큰 특징은 발광 다이오드의 빛 진행 속도에 따라 첫째자의 모음을 끌어 소리가 긴장되지 않게 발음하면서 기기에 부착된 거울을 보고 입술모양을 만들어 호흡과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게 하므로써 말이 막히는 현상을 보다 빠른 시간내에 교정시키도록 하였다.

한편으로는, 강단에 서 원생들과 수강생들을 지도하라, 또 한편으로는 발명도 하라, 바쁘기만한 여성발명가 송원장.

‘세계 55억 인구중에 말더듬는 사람들이 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를 위해 송원장은 자신이 이 문제를 해

결해 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누구보다도 실력자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말을 더듬는다는 열등감 때문에 현실과 맞서 싸우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커다란 손실임은 분명하다.

‘언어교정기를 통한 모음발성의 훈련은 세계적으로 고민하는 말더듬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작지만 그리고 약하지만, 큰 발명가 송미옥.

그녀는 오늘도 집을 나서며 마음엔 지구를 담고 일터로 향하는 어깨가 가볍기만 하다. <♣>

한발앞선 상표출원 국제경쟁 앞서간다